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미혼 남성을 중심으로*

이 지 응¹⁾ 박 수 현[†]

최근 선행 연구들에서 미혼 남성에게서 자살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직무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자살사고에 이르는 경로가 미혼 남성에서 유의함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남성 자살 위험요인인 우울, 무망감, 아동기 외상, 문제적 음주, 자살 가족 수를 통제하였다. 177명의 20-49세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도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자살사고 질문, 우울 척도, 무망감 척도, 아동기 외상 척도, 알코올사용장애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미혼 남성에서 자아존중감은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그리고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미혼 남성, 자살사고, 직무 만족도, 자아존중감

* 이 논문은 2023 연세 시그니처 연구 클러스터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23-22-0013).

본 연구는 이지웅(2025)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1)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박수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E-mail: parksoohyun@yonsei.ac.kr



Copyright ©2025,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자살은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살사고(suicidal ideation), 자살시도(suicide attempt), 자살(suicide)의 세 가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이해된다(Beck et al., 1979; Franklin et al., 2017). 자살사고는 이후 자살시도를 강력하게 예측하고 자살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Franklin et al., 2017; Kuo et al., 2001).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전세계 자살 보고서(2019)에 의하면 매년 약 7만 300명의 사람이 자살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만 명당 24.1명이 자살로 인해 목숨을 잃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1위에 해당한다(OECD, 2020).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살의 위험요인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권혁준, 서종한, 2024).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높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 50년 동안의 자살 위험요인의 예측력을 평가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측력이 50년 동안 거의 향상되지 않았다(Franklin et al., 2017).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광범위하며, 근접적으로는 개인의 심리 상태부터 원격적으로는 환경적 요인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 우울, 무망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 심리 상태는 자살의 근접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McClelland et al., 2020; Ribeiro et al., 2018), 원격 위험요인으로는 사회문화적 규범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사회적 요인, 어린 시절 경험한 역경과 같은 발달적 요인, 유전자나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요인 등이 존

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Turecki et al., 2019).

자살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욱 높은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Beautrais, 2002; Canetto & Sakinofsky, 1998),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이 이러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전세계적으로 나이를 통제했을 때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에 비해 약 2.3배 높고,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는 그 격차가 3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HO, 2019).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자살이 더욱 취약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보고되고 있으며, 통계청 사망원인(2023b)에 의하면 국내 전체 연령에서 남성의 자살률(35.2명)은 여성의 자살률(15.1명)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남성의 자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남성의 자살을 예측하는 요인들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결혼 상태는 여성에 비하여 남성에게서 더욱 강력하게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자살을 예측하는 변인 중 하나로 결혼 상태가 제시되었으며(Pitman et al., 2012; Richardson et al., 2021), 메타분석 연구 결과 미혼 남성 집단에서 가장 큰 자살 위험성이 나타났다(Woo et al., 2018). 남성에게서 결혼 상태가 자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국내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권에서 확인되어 왔다(Corcoran & Nagar, 2010; Fukuchi et al., 2013; Masocco et al., 2008; Park et al. 2018; Yeh et al., 2008). 즉, 미혼 남성이 자살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집단임이 시사된다. 그러나 미혼 남성의 위험요인을 알아보려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연구는 주로 남성 전체의 자살

위험요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주요한 위험요인이 밝혀졌다. 다양한 국가와 집단에서 우울과 무망감은 남성의 자살 위험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왔다(Quevedo et al., 2011; Ran et al., 2007; Skogman et al., 2004; Sun et al., 2012). 아동기 학대 경험 혹은 자살 가족력이 있는 남성에게서 자살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Bennett et al., 2023; Rajalin et al., 2013). 그리고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남성 집단에서 문제적 음주가 자살사고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Allebeck & Allgulander, 1990; Jee et al., 2011; Monnin et al., 2012; Rossow et al., 1999). 따라서 미혼 남성의 자살사고에 대한 기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위험요인들(우울, 무망감, 아동기 학대, 자살 가족력, 문제적 음주)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미혼 남성의 자살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조혼인율(천명당 혼인건수)이 점점 감소함에 따라 미혼 남성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국내 실정을 고려한다면(통계청, 2024), 미혼 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Baumeister(1990)의 ‘자기로부터의 도피(escape from self)’ 이론은 부정적인 자기 혐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자살의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자신의 삶의 조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혐오스러운 자기 인식이 형성된다. 이렇게 손상된 자아존중감은 결국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개념화되며, 다수의 선행연구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살사고 간의 연관성의 증거를 보

여준다. Bhar 외(2008)의 메타분석 연구 결과 우울감과 무망감을 통제한 이후에도 자아존중감이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자살사고와 행동에 대한 예측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머신러닝을 활용한 알고리즘 개발 연구 결과, 기저선 평가 후 1년 뒤의 자살사고와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 중 가장 높은 예측력을 지닌 네 가지는 지난 12개월 동안의 자살사고, 특성 불안, 우울 증상,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Macalli et al., 2021). 해당 연구에서 기저선 평가 시점에 자살사고나 행동을 보고하지 않은 집단에 대한 이차적 분석 결과, 여성과 남성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인으로 여성 집단에서는 우울 증상, 자아존중감, 학업적 스트레스가 나타난 반면, 남성 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살사고와 행동을 보고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젊은 남성 집단에게서 자아존중감이 자살사고에 핵심적인 위험요인이라는 것이 시사된다. Stanaland 외(2023)는 ‘기대-불일치-위협(expectancy-discrepancy-threat)’ 이론을 제시하여 남성의 자아존중감이 손상되는 기제를 남성성(masculinity)이라는 성역할 규범을 통해 설명한다. 남성성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가 있을 때 부정적 자기 평가, 자아존중감의 감소, 자해와 같은 내부적 반응이 나타나며, 이러한 반응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 간극의 크기에 비례한다. 즉, 남성에게서 남성성에 대한 내면화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손상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를 지지하는 근거로 전통적인 남성 성역할이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Coleman & Casey, 2011; Salgado et al., 2019).

직무 만족도란 개인의 직업적 경험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기초한 긍정적이거나 즐거운 정서적 상태를 의미한다(Locke, 1969). 직무 만족도의 정의에 대한 단일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Aziri, 2011), 일반적으로 자신의 직업과 직무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상태로 구성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Xu et al., 2023; Zhu, 2013). 직무 만족도라는 개념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직무 만족도와 유사한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다. 직업 만족도는 직무 만족도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모두 영어로 'job satisfaction'이며, 국내에서는 직무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직무 관여(job involvement)는 자신의 삶에서 일이 얼마나 중심적인 가치로서 작용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의미한다(Lodahl & Kejner, 1965). 직무 관여와 직무 만족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개념이며, 직무 관여가 직무 만족에 선행하는 변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Parasuraman & Alutto, 1984). 즉 직무 관여는 개인의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고, 직무 만족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을 지니는 개념이라고 이해된다. 본 연구는 미혼 남성의 자살사고의 원격 위험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맥락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직무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 직무 만족도가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Alnajdawi et al., 2024; Sarigül et al., 2023). 국내 2년간의 종단 연구에서는 낮은 직무 만족도가 우울 증상과 자살사고를 예측한 결과가 나타났다(Baek et al., 2024). 또한 국내에서 자살사고 및 행동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위험 요인을 조사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 결과 고용 조건, 직업 스트레스 등 직업과 관련된 요인들이 자살

사고 위험의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Raschke et al., 2022).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 남성적 규범 중에서도, 특히 가족과 직업적 장면에서의 남성성은 남성으로서의 자아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 Bennett 외(2023)는 남성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적 규범에 대한 '3D 모델'을 제시하며, 가족과 직업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남성으로서 자아를 손상시켜 결국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가족 부양과 직무 만족도가 남성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Gecas & Seff, 1990; Sinacore & Akçali, 2000), 미혼 남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양할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므로, 직무 만족도가 미혼 남성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더욱 중점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다수의 선행 연구 결과들은 남성 전체 집단에서 직무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연관성을 지지한다(Gecas & Seff, 1990; Satuf et al., 2018; Sinacore & Akçali, 2000). Faragher 외(2005)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직무 만족도는 심리적 문제와 가장 강한 연관성을 보였고, 특히 자아존중감과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직무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 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자살사고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통해 시사되지만, 아직 미혼 남성 집단에서 해당 경로를 검증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자기로부터의 도파' 이론과 '기대-불일치-위험'이론을 종합한다면 미혼 남성에게서 직무 만족도는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통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자살사고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변인들을 통제한 이후,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이러한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직업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서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여성에게서도 직무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여성의 자살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요인(대인관계 어려움, 좌절된 소속감, 사회적 거절, 낮은 자기-자비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enneson et al., 2024; Donker et al., 2014; Miranda-Mendizabal et al., 2019; Smolenski et al., 2023). 또한 여성에게서 높은 사회적 자원 활용 능력은 자살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Beautrais, 2002; Rhodes, 2013; Rickwood et al., 2005). Matud (2024)의 연구는 직무 만족도와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 정신 건강의 연관성이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남성에게서 직무 만족도가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더 강력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미혼 남성에서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직무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거쳐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른 자살 위험요인을 배제하고도 미

혼 남성의 자살 위험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기제임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남성의 자살 위험요인인 우울, 무망감, 아동기 외상, 문제적 음주, 자살 가족 수를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미혼 남성에게서 우울, 무망감, 아동기 외상, 문제적 음주, 자살 가족 수를 통제한 이후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다(그림 1).

방 법

참여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만 19세에서 49세의 미혼 남성 18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평균 혼인 연령 증가와 함께 20-30대에 혼인하는 남성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40대 미혼 남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여(통계청, 2024), 40대 미혼 남성을 모집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및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군복무 중인 참여자 9명을 분석에서 제외한 총 17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0.62세($SD = 7.03$)였다.

참여자의 월 평균 소득 정보를 중위소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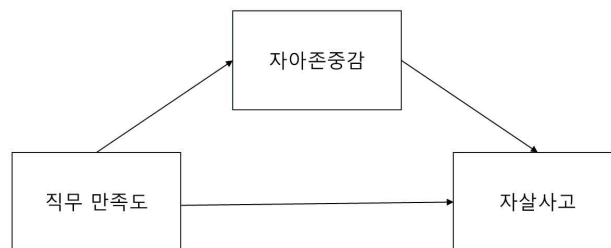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연령대별 소득 구간 분포 (N = 177)

연령대	소득 구간				
	1구간 미만	1~3구간	4~6구간	7~9구간	9구간 이상
20대 (n = 81)	34 (41.98%)	10 (12.35%)	21 (25.93%)	15 (18.52%)	1 (1.23%)
30대 (n = 64)	12 (18.75%)	0 (0.00%)	21 (32.81%)	27 (42.19%)	4 (6.25%)
40대 (n = 32)	1 (3.12%)	1 (3.12%)	10 (31.25%)	17 (53.13%)	3 (9.38%)

비율에 따라서 나눈 9개의 구간(1구간 미만: 60만원 미만, 1~3구간: 6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4~6구간: 15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 7~9구간: 27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9구간 이상: 8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수집하였으며, 연령대별 소득 구간 분포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절차

본 연구는 소속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IRB 승인번호: 7001988-202402-HR-2179-01), 자료 수집 기간은 2024년 3월 6일부터 2024년 3월 11일까지였다. 모집은 온라인 설문업체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해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이 시행되었다. 연구 참여를 완료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온라인 포인트가 지급되었다.

측정도구

직무 만족도 척도(Job Satisfaction Index; JSI)
Brayfield와 Rothe(1951)가 개발 및 타당화

였으며, Judge 외(1988)가 수정하고 국내에서 장진이와 이지연(2014)이 번안한 직무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나는 현재 직장(일자리)에서 하고(맡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각 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경험하는 직무 만족도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87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Rosenberg(1965)가 개발 및 타당화하고 국내에서 전병제(1974)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각 문항에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는 .89이었다.

자살사고

개인의 자살사고 수준을 측정하고자 ‘지난 일 년 동안 얼마나 자주 자살을 하려고 생각해 보았습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1: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다(0번)’ ~ 5: ‘매우 자주 생각해 보았다(5번 이상)’)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단일 문항을 통해 측정한 자살사고는 자살시도 및 불안이나 우울 등 자살의 위험요인을 예측하였으며, 다중 문항 척도와 유사한 수준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나타났다(Chae et al., 2020; Green et al., 2015; Joiner et al., 2022; Schafer et al., 2024).

한국판 역학연구 우울척도 개정판(Korean Version of the Center of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Revised; K-CESD-R)

Radloff(1977)가 개발 및 타당화하고 Eaton 외(2004)가 개정하여 국내에서 이산 외(2016)가 번안한 한국판 역학연구 우울척도 개정판을 사용하였다. 우울 증상을 묻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상당히 우울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최근 일주일동안 해당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 대해 0점(1주간 1일 미만)에서 3점(1주간 5~7일), 2주간 거의 매일 증상을 경험한 경우에는 4점의 총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6이었다.

무망감 척도(Beck Hopelessness Scale; BHS)

Beck 외(1974)가 개발 및 타당화하고 국내에

서 신민섭 외(1990)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나는 내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고 의욕적이다.’, ‘내 생활은 더 좋아지도록 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각 문항에 예(1점) 또는 아니오(0점)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경험하는 무망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다.

아동기 외상 질문지 단축형(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

Bernstein 외(2003)가 개발 및 타당화하고 김은정과 김진숙(2010)이 국내에서 번안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본래 척도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의 총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하위요인과 성적 학대는 분리된 독립적인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최근 동향에 따라(김은정, 김진숙, 2010), 성적 학대를 제외하여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예: ‘가족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꼈다.’, ‘세계 맞아 멍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 ‘나에게 제때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 각 문항에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없음’ ~ 4: ‘자주 있음’)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만 18세 이전에 부모님 혹은 가족 내에서 경험하였던 외상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한국판 알코올사용장애 척도(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알코올사용장애 척도를 이병욱 외(2000)가 번안한 한국판 알코올사용장애 척도(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를 사용하였다. 음주 사용 양상을 묻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9번 문항(‘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까?’)의 경우에만 3점 리커트 척도(1: ‘없었다’ ~ 3: ‘지난 1년 간 있었다’)로 응답하며, 그 외의 나머지 문항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없다’ ~ 5: ‘매일같이’)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적 음주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남성의 경우 절단점은 10점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자살 가족 수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가족의 인원수를 측정하고자 ‘자살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가족(혹은 친척) 구성원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예’ 또는 ‘아니요’로 응답하며, ‘예’라고 응답한 경우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가족의 인원수를 주관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

SPSS 27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음의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SPSS PROCESS macro 4.2의 모델 4를 이용하여 우울, 무망감, 아동기 외상, 문제적 음주, 자살 가족 수를 통제한 이후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

고의 관계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95%의 신뢰구간에서 5000개의 부트스트랩(bootstrap) 표본 추출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통제변인을 투입한 이후 각 경로에 대한 효과크기를 구하였다.

결 과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각 평균, 표준편차와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직무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 = .44, p < .001$). 자살사고는 직무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 = -.29, p < .001$; $r = -.53, p < .001$). 즉,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직무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고와 우울, 무망감, 아동기 외상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 = .68, p < .001$; $r = .56, p < .001$; $r = .33, p < .001$).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bootstrapping을 활용해 5000개의 표본을 재표집하고 신뢰구간 95%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우울, 무망감, 아동기 외상, 문제적 음주, 자살 가족 수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총효과와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b = -.04, t = -0.61, p = .54$; $b = -.01, t =$

표 2.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1) 직무 만족도	-							
(2) 자아존중감	.44**	-						
(3) 자살사고	-.29**	-.53**	-					
(4) 우울	-.27**	-.51**	.68**	-				
(5) 무망감	-.48**	-.66**	.56**	.65**	-			
(6) 아동기 외상	-.14	-.29**	.33**	.50**	.43**	-		
(7) 문제적 음주	.16*	.15*	-.02	.13	-.02	.27**	-	
(8) 자살 가족 수	-.02	.02	.08	.13	.07	.23**	.16*	-
<i>M</i>	15.37	41.54	1.76	16.41	7.58	33.32	7.34	0.07
<i>SD</i>	4.21	10.99	1.12	16.76	6.13	10.22	7.02	0.25

주. * $p < .05$, ** $p < .01$

표 3.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경로	<i>b</i>	<i>SE</i>	95% CI	
			<i>LL</i>	<i>UL</i>
총효과				
직무 만족도 → 자살사고	-.04	.07	-.1761	.0933
직접효과				
직무 만족도 → 자살사고	-.01	.07	-.1444	.1244
간접효과				
직무 만족도 → 자아존중감 → 자살사고	-.03	.02	-.0762	-.0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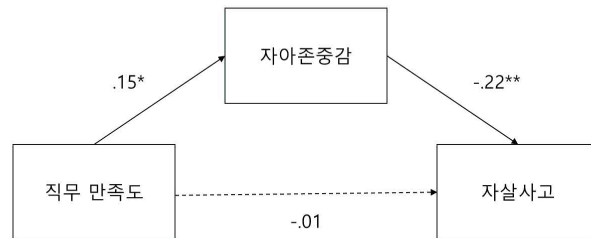


그림 2.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완전매개 효과

-0.15, $p = .88$),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3$, 95% CI [-0.0762, -.0018]). 즉,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완전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위계적 회귀분석 - 직무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단계	종속변인	예측변인	β	R^2	ΔR^2	ΔF
1	자아존중감	우울	-.173*	.477	.477	31.161***
		무망감	-.537***			
		아동기 외상	-.029			
		문제적 음주	.158**			
		자살 가족 수	.101			
2	자아존중감	우울	-.176*	.493	.016	5.330*
		무망감	-.465***			
		아동기 외상	.067			
		문제적 음주	.063*			
		자살 가족 수	.100			
		직무 만족도	.146*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위계적 회귀분석 - 자아존중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단계	종속변인	예측변인	β	R^2	ΔR^2	ΔF
1	자살사고	우울	.580***	.496	.496	33.688***
		무망감	.186*			
		아동기 외상	-.015			
		문제적 음주	-.084			
		자살 가족 수	-.006			
2	자살사고	우울	.545***	.517	.021	7.418**
		무망감	.078			
		아동기 외상	-.021			
		문제적 음주	-.052			
		자살 가족 수	.018			
		직무 만족도	-.201**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통제변인들을 투입한 이후 각 경로의 효과크기를 구하여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남성에게서 일반적으로 자살 위험요인이라고 알려진 우울, 무망감, 아동기 외상, 문제적 음주, 자살 가족 수를 통제한 이후, 미혼 남성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직무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 만족도가 남성의 자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Faragher et al., 2005; Gecas & Seff, 1990; Satuf et al., 2018; Sinacore & Akçali, 2000).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완전매개 효과는 ‘기대-불일치-위협’ 이론 및 ‘자기로부터의 도파’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 두 이론을 종합하면 남성성에 대한 기대와 현실에 불일치가 있을 때 자아존중감이 손상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의 손상은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혼 남성에게서 직무 만족도는 남성으로서 자아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고려했을 때 직업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직업적 장면에서 기대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반영하며, 이는 자아존중감의 감소를 통해 결국 자살사고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직무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거쳐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을 통하지 않고 자살사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직무 만족도가 자살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아존중감을 거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직무 만족도가 자살의 원격 위험요인에 해당하며, 원격 위험요인은 근접 위험요인을 통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McClelland et al., 2020; Ribeiro et al., 2018). 직무 만족도는 오랜 기간 연구가 되어왔지만 아직 정의와 개념에 대하여 단일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복잡하게 구성된 개념이며(Aziri, 2011),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 가능하다. 정서적 경향성이나 성격 특질과 같은 기질적 측면; 순간적 기분에 영향을 주었던 특정 사건과 같은 경험적 측면; 직업의 특성이나 일-가정 갈등과 같은 환경적 측면(Judge et al., 2020). 직무 만족도의 이러한 측면들은 각각 유전적, 발달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자살의 원격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Turecki et al., 2019), 이는 개인 내적 심리 상태인 근접 위험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직무 만족도가 우울을 통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oward & Krannitz, 2017),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서는 직업적 장면에서의 어려움이 근접 위험요인(좌절된 소속감이나 지각된 짐스러움과 같은 대인관계적 고통, 정신질환과 같은 심리적 고통, 무망감)을 통해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Howard et al., 2022).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은 원격 위험요인으로서 직무 만족도가 근접 위험요인을 통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을 지지한다. 하지만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도를 자살사고의 원격 위험요인으로서 다루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된 직무 만족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직무 만족도의 요인 중 어떤 것이 미혼 남성의 자아존중감 및 자살사고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회적 성취 수준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가 미혼 남성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했던 자살사고의 기제는 남성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의 손상이므로, 직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취 수준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가 더욱 주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었다. 그리고 미혼 남성이라는 참여자 특성상 청년층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청년층에서 높은 사회적 성취 수준을 달성한 집단은 중장년층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소수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주관적인 측정치인 직무 만족도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적 성취 수준을 측정하여, 보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미혼 남성의 자아존중감이 손상되는 기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문제적 음주와 직무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까지 확인되어 온 선행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숙현과 한창근(2019)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대규모 표본에서 문제적 음주와 자아존중감 간의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제적 음주와 자아존중감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 원인에 대해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선 참여자의 대부분이 청년(20~30대)이라는 점으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문제적 음주에 미치는 영향은 중장년 집단에서만 유의하였고, 청년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

다(이숙현, 한창근, 2019). 청년과 중장년 집단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음주 동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청년과 같은 성인초기에는 사교와 같은 사회적 동기로 인해 음주를 하는 반면, 중장년기에 들어설수록 감정 문제 해결을 위한 음주를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이정진 외, 2014). 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사회적 동기로 음주를 한다고 보고했으며, 사교 동기를 위한 음주는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Kuntsche et al., 2005). 따라서 대부분의 참여자가 청년층인 본 연구 특성상 음주의 빈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음주를 많이 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음주의 빈도나 양 등 연속적인 변인을 측정하기 때문에 낮은 점수는 '문제적' 음주라고 볼 수 없다. 남성의 경우 문제적 음주의 절단점은 10점이며, 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점수가 7.34점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음주 양상이 문제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혼 남성의 개인 선호도에 따라 음주의 양상이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적 음주와 자아존중감의 정적 상관이 나타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남성이 음주를 많이 한다거나 음주를 많이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방향으로 오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이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결과는 미혼 남성에게서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살사고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는 것이 미혼 남성의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은 광범위한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으로 알려져 왔으며 개입을 통해 증

진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Mann et al., 2004). 자살을 포함하여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 및 물질 남용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증진을 목표로 하는 치료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우울, 불안, 외로움, 무망감 등 자살 관련 요인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Chioqueta & Stiles, 2007; Eisenbarth, 2012; Greenberg et al., 1992; Rossi et al., 2020). 최근의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개입은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효과크기가 크지 않으며 양질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Dat et al., 2022). 이러한 한계점의 원인 중 하나는 자아존중감 개념의 광범위성으로 인하여(Rosenberg, 1965), 구체적인 개입 전략 성립의 어려움 때문일 수 있다. 개입 전후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알아본 선행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 자체를 개입의 목표로 삼지 않았으며, 자아존중감은 특정 개입 프로그램 실행에 따라 부수적으로 변화하였다(Haney, 1998; O'Mara, 2006). 그러나 최근의 메타분석 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 자체를 개입의 목표로 다루었으며, 개입 전략들 중에서 인지행동치료가 자아존중감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Dat et al., 2022; Kolubinski et al., 2018; Niveau et al., 2021). 따라서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인지행동적 개입 전략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특히 직업적 장면에서 '실패한 사람' 혹은 '성공할 수 없음' 등 역기능적 신념의 수정을 통해 미혼 남성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자살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남성성이

라고 표현되는 남성적 규범은 어린 시절 학습되고 사회화되며,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거치면서 강화된다(Salgado et al., 2019). 규범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대 사회는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과는 달리 여성도 남성과 다름없이 직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즉, 남성성의 일부 특정한 측면에서는 내면화된 정도가 성별과 무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에 대한 내면화 정도를 측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남성성의 어떠한 측면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욱 높게 내면화되어 있는지, 미혼 남성에게서 특히 내면화 정도가 높은 남성성은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이 직무 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자살사고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검증하였던 직무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거쳐 자살사고에 미치는 경로가 여성에서도 유의한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직업적 장면에서 성공하는 것을 미혼 남성의 자아를 형성하는 주요한 남성성의 한 측면으로 보았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직무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남성성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므로 직무 만족도 외에 다양한 남성성의 측면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 결과들은 남성성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연관성의 근거를 제시해왔다(Antill & Cunningham, 1979; Long, 1989; Long, 1993; Wong et al., 2015). 다양한 측면의 남성성 중에서 가령, 대인관계적 측면에서의 남성성이 미혼 남성의 자아존중감 및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인관계적

경험 및 양상과 자아존중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이라고 이해된다는 점에서(Cameron & Granger, 2019; Harris & Orth, 2020; Leary et al., 1995), 대인관계적 측면에서의 남성성은 남성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를 공유하는 배우자가 부재한 미혼 남성의 특성상 외로움과 같은 대인관계적 요인이 자아존중감과 자살사고에 주요한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김성연 외, 2023). 자살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로 ‘대인관계 이론(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이 있으며(Van Orden et al., 2010), 해당 이론에서는 자살의 원인을 두 가지 대인관계적 요인으로 설명한다. 하나는 ‘좌절된 소속감(thwarted belongingness)’으로 호혜적인 관계의 결핍과 부족한 사회적 지지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지각된 짐스러움(perceived burdensomeness)’으로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생각과 느낌을 의미한다. 이중 외로움은 좌절된 소속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Van Orden et al., 2012). 반면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보다는 자아존중감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자기로부터의 도파’ 이론을 기반으로 미혼 남성의 자살사고의 기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외로움 등 대인관계적 측면이 미혼 남성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며, 선행 연구 결과 남성에게서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을 때 자살사고와 행동의 위험이 증가했다(Goodman et al., 2020). 이혼 이후 자살의 위험성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Scourfield & Evans, 2015), 남성에게서 높은 자기-의존성은 자살사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ng et al., 2020; Pirkis et al., 2017).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대인관

계 이론’을 기반으로 외로움과 같은 대인관계적 요인이 미혼 남성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 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아 미혼 남성 내 세대별 차이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남성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세대별로 직무 만족도가 자아존중감 및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는 사회적 지위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세대 별로 집단을 나누어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남성성은 각 나라와 문화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우리나라 미혼 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고 미혼 인구가 점점 증가함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는 월 소득 150만원 미만 집단의 경우 직업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의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직업이라는 개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월소득 150만원 미만의 참여자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한 이유는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미혼 남성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고자 함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3a)에 따르면, 22년도 청년 취업자 중 26.0%가 주 36시간 미만의 근로 형태에 종사하고 있으며, 졸업 상태인 응답자 중 74.5%는 현재 일자리 형태를 유지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이는 청년층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삶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표본 중 월소득 150만원 미만인 참여자를 제외하고 동일한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을 때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집단이 상대적으로 자살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미혼 남성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후 어떤 형태의 근로를 하는 집단이 더욱 자살사고에 취약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넷째, 심리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을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자기보고식 설문은 기억에 의존하므로 주관적일 수 있다. 그 중 자살사고는 지난 1년의 기간을 회상하여 응답해야 하고, 1년의 기간은 회상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정확성에 대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자살사고를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타당도에 대하여 한계점을 지니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타당화된 자살사고 척도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기존 자기보고식 척도가 남성의 실질적인 자살사고 및 자살 전의 징후를 충분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Hunt et al., 2017).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우울의 표현 방식에서 성차가 존재하며(Cavanagh et al., 2017), 남성들의 자살에 대한 징후는 주변 사람들에게 거의 인식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Hofmann & Wagner, 2023). 따라서 남성의 자살사고를 평가할 수 있는 더욱 민감도 높은 척도에 대한 개발 및 타당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직무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자살사고에 이르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횡단적 방법을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횡단적 방법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종단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연구의 핵심적인 의의 중 하나는 첫째, 학

술적인 측면에서 미혼 남성의 자살사고의 기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혼 남성이 상대적으로 자살에 취약할 수 있는 집단으로 시사되나 아직 미혼 남성의 자살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미혼 남성의 직무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거쳐 자살사고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특히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살의 위험요인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고, 통제 변인을 투입한 이후에도 해당 경로가 유의함을 검증하였다. 해당 경로가 미혼 남성에서 고유한 기제임을 더욱 확신하기 위해 추후 연구를 통해 미혼 남성과 기혼 남성 집단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낮은 혼인율과 높은 자살률이라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상을 반영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추후 미혼 남성의 자살사고에 대한 다수의 연구 결과가 축적된다면, 본 연구 결과는 미혼 남성의 자살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개입을 개발하는 데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미혼 남성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자살률 감소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혁준, 서종한 (2024). 메타분석에 기반한 자살 예측 연구에서 전통적 통계 기법과 머신러닝 기반 접근법의 예측력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0(3), 239-265.

<https://doi.org/10.20406/kjcs.2024.8.30.3.239>

김성연, 박효은, 이보라, 이동훈 (2023). 코로나

- 대유행 시기 자살사고 유병률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9(3), 405-427.
<https://doi.org/10.20406/kjcs.2023.8.29.3.405>
- 김은정, 김진숙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05-630.
 G704-000523.2010.22.3.016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https://accesson.kr/kjcp/v.9/1/1/26412>
- 이병욱, 이충현, 이필구, 최문중, 남궁기 (2000). 한국어판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검사 (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의 개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 *중독정신의학*, 4(2), 83-92.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25922979?dbid=edskyo&an=edskyo.4010025922979&text=Full+Text%28%EC%8A%A4%EC%BD%9C%EB%9D%BC%29>
- 이 산, 오승택, 류소연, 전진용, 이견석, 이은, 박진영, 이상욱, 최원정 (2016). 한국판 역학연구 우울척도 개정판 (K-CESD-R)의 표준화 연구. *정신신체의학*, 24(1), 83-93.
 G704-SER000003246.2016.24.1.010
- 이숙현, 한창근 (2019).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연령집단 간 다집단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 39(1), 293-333.
- 이정진, 문은수, 박제민, 이병대, 이영민, 정희정, 최윤미, 정영인. (2014).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음주행동 관련 요인. *생물치료정신의학*, 20(1), 54-62.
<https://doi.org/10.15709/hswr.2019.39.1.293>
- 장진이, 이지연 (2014). 교사의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의 의미, 소명수행 의식, 삶의 의미, 직업 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123-146.
 G704-000523.2014.26.1.004
- 전병제 (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 논총*, 11(1), 107-130.
- 통계청 (2023a.7.3.).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D_2
- 통계청 (2023b.9.21.). 2022년 사망원인통계.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200&bid=218&act=view&list_no=427216
- 통계청 (2024.3.19.). 2023년 혼인이혼통계.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act=view&list_no=429995
- Allebeck, P., & Allgulander, C. (1990). Suicide among young men: psychiatric illness, deviant behaviour and substance abus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81(6), 565-570.
<https://doi.org/10.1111/j.1600-0447.1990.tb05500.x>
- Alnajdawi, A. M., Alsawalqa, R. O., & Alrawashdeh, M. N. (2024). Suicidal ideation and their relationship 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strain among Jordanian hospitals' healthcare professionals: a cross-sectional study. *Frontiers in Public Health*, 12, 1393867.
<https://doi.org/10.3389/fpubh.2024.1393867>
- Antill, J. K., & Cunningham, J. D. (1979). Self-esteem as a function of masculinity in

- both sex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4), 783-785.
<https://doi.org/10.1037/0022-006X.47.4.783>
- Aziri, B. (2011). Job satisfaction: A literature review. *Management Research & Practice*, 3(4), 77-86.
- Baek, S. U., Yoon, J. H., & Won, J. U. (2024). Job dissatisfaction as a risk factor of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female workers: evidence from a nationwide longitudinal study in South Korea.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27(1), 57-66.
<https://doi.org/10.1007/s00737-023-01383-4>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1), 90-113.
<https://doi.org/10.1037/0033-295X.97.1.90>
- Beautrais, A. L. (2002). Gender issues in youth suicidal behaviour. *Emergency Medicine*, 14(1), 35-42.
<https://doi.org/10.1046/j.1442-2026.2002.00283.x>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352.
- Beck, A. T., Weissman, A., Lester, D., & Trexler, L.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6), 861-865.
<https://doi.org/10.1037/h0037562>
- Bennett, S., Robb, K. A., Zortea, T. C., Dickson, A., Richardson, C., & O'Connor, R. C. (2023). Male suicide risk and recovery factors: A systematic review and qualitative meta synthesis of two decades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49(7-8), 371-417.
<https://doi.org/10.1037/bul0000397>
- Bernstein, D. P., Stein, J. A., Newcomb, M. D., Walker, E., Pogge, D., Ahluvalia, T., Stokes, J., Handelsman, L., Medrano, M., Desmond, D., & Zule, W.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rief screening version of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hild Abuse & Neglect*, 27(2), 169-190.
[https://doi.org/10.1016/S0145-2134\(02\)00541-0](https://doi.org/10.1016/S0145-2134(02)00541-0)
- Bhar, S., Ghahramanlou-Holloway, M., Brown, G., & Beck, A. T. (2008). Self-esteem and suicide ideation in psychiatric outpatient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38(5), 511-516.
<https://doi.org/10.1521/suli.2008.38.5.511>
- Brayfield, A. H., & Rothe, H. F. (1951). An index of job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5(5), 307-311.
<https://doi.org/10.1037/h0055617>
- Cameron, J. J., & Granger, S. (2019). Does self-esteem have an interpersonal imprint beyond self-reports? A meta-analysis of self-esteem and objective interpersonal indicato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3(1), 73-102.
<https://doi.org/10.1177/1088868318756532>
- Canetto, S. S., & Sakinofsky, I. (1998). The gender paradox in suicide.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28(1), 1-23.
<https://doi.org/10.1111/j.1943-278X.1998.tb00622.x>
- Cavanagh, A., Wilson, C. J., Kavanagh, D. J., & Caputi, P. (2017).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of symptoms in men versus women with depression: A systematic review and

- meta-analysis.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29(1), 29-38.
<https://doi.org/10.1097/HRP.000000000000128>
- Chae, W., Park, E. C., & Jang, S. I. (2020). Suicidal ideation from parents to their children: An association between parent's suicidal ideation and their children's suicidal ideation in South Korea. *Comprehensive psychiatry*, 101, 152181.
<https://doi.org/10.1016/j.comppsy.2020.152181>
- Chioqueta, A. P., & Stiles, T. C.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buffers,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Identification of protective factors. *Crisis*, 28(2), 67-73.
<https://doi.org/10.1027/0227-5910.28.2.67>
- Coleman, D., & Casey, J. T. (2011). The social nature of male suicide: A new analytic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Men's Health*, 10(3), 240-252. <https://doi.org/10.3149/jmh.1003.240>
- Corcoran, P., & Nagar, A. (2010). Suicide and marital status in Northern Ireland.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5, 795-800.
<https://doi.org/10.1007/s00127-009-0120-7>
- Dar, N. T., Mitsui, N., Asakura, S., Takanobu, K., Fujii, Y., Toyoshima, K., Kako, Y., & Kusumi, I. (2022). The effectiveness of self-esteem-related interventions in reducing suicidal behavior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Frontiers in Psychiatry*, 13, 925423.
<https://doi.org/10.3389/fpsy.2022.925423>
- Denneson, L. M., Smolenski, D. J., McDonald, K. L., Shull, S., Hoffmire, C. A., Britton, P. C., Carlson, K. F., & Dobscha, S. K. (2024). Gender differences in risk and resilience for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A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study of United States veterans with a recent suicide attemp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60, 412-420.
<https://doi.org/10.1016/j.jad.2024.05.133>
- Donker, T., Batterham, P. J., Van Orden, K. A., & Christensen, H. (2014). Gender-differences in risk factors for suicidal behaviour identified by perceived burdensomeness, thwarted belongingness and acquired capability: Cross-sectional analysis from a longitudinal cohort study. *BMC Psychiatry*, 2, 1-10.
<https://doi.org/10.1186/2050-7283-2-20>
- Eaton, W. W., Smith, C., Ybarra, M., Muntaner, C., & Tien, A. (2004).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eview and Revision (CESD and CESD-R). In M. E. Maruish (Ed.), *The use of psychological testing for treatment planning and outcomes assessment: Instruments for adults* (3rd ed., pp. 363-377).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Eisenbarth, C. (2012). Does self-esteem moderate the relations among perceived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College Student Journal*, 46(1), 149-158.
- Faragher, E. B., Cass, M., & Cooper, C. L.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health: A meta-analysis.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62(2), 105-112.
<https://doi.org/10.1136/oem.2002.006734>
- Franklin, J. C., Ribeiro, J. D., Fox, K. R., Bentley, K. H., Kleiman, E. M., Huang, X., Musacchio, K. M., Jaroszewski, A. C., Chang, B. P., & Nock, M. K. (2017). Risk factors

- for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A meta-analysis of 50 years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43(2), 187-232.
<https://doi.org/10.1037/bul0000084>
- Fukuchi, N., Kakizaki, M., Sugawara, Y., Tanji, F., Watanabe, I., Fukao, A., & Tsuji, I. (2013). Association of marital status with the incidence of suicide: A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in Japan (Miyagi cohort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0(3), 879-885.
<https://doi.org/10.1016/j.jad.2013.05.006>
- Gecas, V., & Seff, M. A. (1990). Social class and self-esteem: Psychological centrality, compensation, and the relative effects of work and hom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3(2), 165-173. <https://doi.org/10.2307/2786677>
- Goodman, M. L., Seidel, S. E., Gibson, D., Lin, G., Patel, J., Keiser, P., & Gitari, S. (2020). Intimate partnerships,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related hospitalization among young Kenyan men.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56(7), 1225-1238.
<https://doi.org/10.1007/s10597-020-00572-0>
- Green, K. L., Brown, G. K., Jager-Hyman, S., Cha, J., Steer, R. A., & Beck, A. T. (2015).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suicide item.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76(12), 1683-1686.
<https://doi.org/10.4088/JCP.14m09391>
- Greenberg, J., Solomon, S., Pyszczynski, T., Rosenblatt, A., Burling, J., Lyon, D., ... & Pinel, E. (1992). Why do people need self-esteem? Converging evidence that self-esteem serves an anxiety-buffering fun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6), 913-922.
<https://doi.org/10.1037/0022-3514.63.6.913>
- Haney, P., & Durlak, J. A. (1998). Changing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tical review.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4), 423-433.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704_6
- Harris, M. A., & Orth, U. (2020). The link between self-esteem and social relationships: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9(6), 1459-1477.
<https://doi.org/10.1037/pspp0000265>
- Hofmann, L. & Wagner, B. (2023). Men's behavior and communication in the days prior to a suicide: A psychological autops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17), 6668.
<https://doi.org/10.3390/ijerph20176668>
- Howard, M. C., Follmer, K. B., Smith, M. B., Tucker, R. P., & Van Zandt, E. C. (2022). Work and suicide: An interdisciplinary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43(2), 260-285.
<https://doi.org/10.1002/job.2519>
- Howard, M. C., & Krannitz, M. (2017). A reanalysis of occupation and suicide: Negative perceptions of the workplace linked to suicide attemp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51(8), 767-788.
<https://doi.org/10.1080/00223980.2017.1393378>
- Hunt, T., Wilson, C. J., Caputi, P., Woodward, A., & Wilson, I. (2017). Signs of current suicidality in men: A systematic review. *PLoS One*, 12(3). e0174675.

-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74675>
- Jee, S. H., Kivimaki, M., Kang, H. C., Park, I. S., Samet, J. M., & Batty, G. D. (2011).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in relation to suicide mortality in Asia: prospective cohort study of over one million Korean men and women. *European Heart Journal*, 32(22), 2773-2780. <https://doi.org/10.1093/eurheartj/ehr229>
- Joiner, T. E., Robison, M., McClanahan, S., Riddle, M., Manwaring, J., Rienecke, R. D., Le Grange, D., Duffy, A., Mehler, P. S., & Blalock, D. V. (2022). Eating disorder behaviors as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among people with an eating dis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55(10), 1352-1360. <https://doi.org/10.1002/eat.23770>
- Judge, T. A., Locke, E. A., Durham, C. C., & Kluger, A. N. (1998). Dispositional effects on job and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core evalu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1), 17-34. <https://doi.org/10.1037/0021-9010.83.1.17>
- Judge, T. A., Zhang, S. C., & Glerum, D. R. (2020). Job satisfaction. In Sessam V. I., Bowling, N. A.(Eds.), *Essentials of Job Attitudes and Other Workplace Psychological Constructs* (pp. 207-241).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429325755-11>
- King, T. L., Shields, M., Sojo, V., Daraganova, G., Currier, D., O'Neil, A., King, K., & Milner, A. (2020). Expressions of masculinity and associations with suicidal ideation among young males. *BMC Psychiatry*, 20(1), Article 228. <https://doi.org/10.1186/s12888-020-2475-y>
- Kolubinski, D. C., Frings, D., Nikčević, A. V., Lawrence, J. A., & Spada, M. M. (2018).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CBT interventions based on the Fennell model of low self-esteem. *Psychiatry Research*, 267, 296-305.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8.06.025>
- Kuntsche, E., Knibbe, R., Gmel, G., & Engels, R. (2005). Why do young people drink? A review of drinking motiv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7), 841-861. <https://doi.org/10.1016/j.cpr.2005.06.002>
- Kuo, W. H., Gallo, J. J., & Tien, A. Y. (2001). Incidence of suicide ideation and attempts in adults: The 13-year follow-up of a community sample in Baltimore, Maryland. *Psychological Medicine*, 31(7), 1181-1191. <https://doi.org/10.1017/S0033291701004482>
- Leary, M. R., Tambor, E. S., Terdal, S. K.,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3), 518-530. <https://doi.org/10.1037/0022-3514.68.3.518>
- Locke, E. A. (1969). What i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4(4), 309-336. [https://doi.org/10.1016/0030-5073\(69\)90013-0](https://doi.org/10.1016/0030-5073(69)90013-0)
- Lodahl, T. M., & Kejner, M. (1965).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job involve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49(1), 24-33. <https://doi.org/10.1037/h0021692>
- Long, V. O. (1989). Relation of masculinity to self-esteem and self-acceptance in male professionals, college students, and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1), 84-87.

- <https://doi.org/10.1037/0022-0167.36.1.84>
- Long, V. O. (1993). Masculinity, femininity, and male scientists' self-esteem and self-acceptance. *The Journal of psychology, 127*(2), 213-220.
<https://doi.org/10.1080/00223980.1993.9915556>
- Macalli, M., Navarro, M., Orri, M., Tournier, M., Thiébaud, R., Côté, S. M., & Tzourio, C. (2021). A machine learning approach for predicting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urs among college students. *Scientific Reports, 11*(1), Article 11363.
<https://doi.org/10.1038/s41598-021-90728-z>
- Mann, M., Hosman, C. M., Schaalma, H. P., & De Vries, N. K. (2004). Self-esteem in a broad-spectrum approach for mental health promotion. *Health Education Research, 19*(4), 357-372. <https://doi.org/10.1093/her/cyg041>
- Masocco, M., Pompili, M., Vichi, M., Vanacore, N., Lester, D., & Tararelli, R. (2008). Suicide and marital status in Italy. *Psychiatric Quarterly, 79*, 275-285.
<https://doi.org/10.1007/s11126-008-9072-4>
- Matud, M. P., Sánchez-Tovar, L., Hernández-Lorenzo, D. E., & Cobos-Sanchiz, D. (2024). Job satisfaction, mental symptoms, and well-being in adult workers: A gender analysis. *Psychiatry International, 5*(2), 253-267.
<https://doi.org/10.3390/psychiatryint5020018>
- McClelland, H., Evans, J. J., Nowland, R., Ferguson, E., & O'Connor, R. C. (2020). Loneliness as a predictor of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u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prospective studi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74*, 880-896.
<https://doi.org/10.1016/j.jad.2020.05.004>
- Miranda-Mendizabal, A., Castellví, P., Parés-Badell, O., Alayo, I., Almenara, J., Alonso, I., Blasco, M. J., Cebrià, A., Gabilondo, A., Gili, M., Lagares, C., Piqueras, J. A., Rodríguez-Jiménez, T., Rodríguez-Marín, J., Roca, M., Soto-Sanz, V., Vilagut, G., & Alonso, J. (2019). Gender differences in suicidal behavior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64*, 265-283.
<https://doi.org/10.1007/s00038-018-1196-1>
- Monnin, J., Thiemard, E., Vandel, P., Nicolier, M., Tio, G., Courtet, P., Bellivier, F., Sechter, D., & Haffen, E. (2012). Sociodemographic and psychopathological risk factors in repeated suicide attempts: gender differences in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6*(1-2), 35-43.
<https://doi.org/10.1016/j.jad.2011.09.001>
- Niveau, N., New, B., & Beaudoin, M. (2021). Self-esteem interventions in adults-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94*, 104131.
<https://doi.org/10.1016/j.jrp.2021.104131>
- OECD. (2020). Suicide rates (indicator). <https://doi.org/10.1787/a82f3459-en> (Accessed on 03 June 2024)
- O'Mara, A. J., Marsh, H. W., Craven, R. G., & Debus, R. L. (2006). Do self-concept interventions make a difference? A synergistic blend of construct validation and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ist, 41*(3), 181-206.
https://doi.org/10.1207/s15326985ep4103_4
- Parasuraman, S., & Alutto, J. A. (1984). Sources

- and outcomes of stress in organizational settings: Toward the development of a structural model.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7(2), 330-350.
<https://doi.org/10.2307/255928>
- Park, S. K., Lee, C. K., & Kim, H. (2018). Suicide mortality and marital status for specific ages, genders, and education levels in South Korea: Using a virtually individualized dataset from national aggregate data.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37, 87-93.
<https://doi.org/10.1016/j.jad.2018.05.003>
- Pirkis, J., Spittal, M. J., Keogh, L., Mousaferiadis, T., & Currier, D. (2017). Masculinity and suicidal thinking.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2(3), 319-327.
<https://doi.org/10.1007/s00127-016-1324-2>
- Pitman, A., Kryszyska, K., Osborn, D., & King, M. (2012). Suicide in young men. *The Lancet*, 379(9834), 2383-2392.
[https://doi.org/10.1016/S0140-6736\(12\)60731-4](https://doi.org/10.1016/S0140-6736(12)60731-4)
- Quevedo, L., da Silva, R. A., Coelho, F., Pinheiro, K. A. T., Horta, B. L., Kapczinski, F., & Pinheiro, R. T. (2011). Risk of suicide and mixed episode in men in the postpartum period.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2(1-2), 243-246.
<https://doi.org/10.1016/j.jad.2011.01.004>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Rajalin, M., Hirvikoski, T., & Jokinen, J. (2013). Family history of suicide and exposure to interpersonal violence in childhood predict suicide in male suicide attempt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48(1), 92-97.
<https://doi.org/10.1016/j.jad.2012.11.055>
- Ran, M. S., Xiang, M. Z., Li, J., Huang, J., Chen, E. Y. H., Chan, C. L. W., & Conwell, Y. (2007). Correlates of lifetime suicide attempts among individuals with affective disorders in a Chinese rural community.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1(1), 119-127.
<https://doi.org/10.1080/13811110600993090>
- Raschke, N., Mohsenpour, A., Aschentrup, L., Fischer, F., & Wrona, K. J. (2022). Socioeconomic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behaviors in South Korea: systematic review on the current state of evidence. *BMC Public Health*, 22(1), Article 129.
<https://doi.org/10.1186/s12889-022-12498-1>
- Rhodes, A. (2013). Youth suicide in Canada: Distinctions among boys and girls. *Healthcare Quarterly*, 16(3), 11-13.
<https://doi.org/10.12927/hcq.2013.23504>
- Ribeiro, J. D., Huang, X., Fox, K. R., & Franklin, J. C. (2018). Depression and hopelessness as risk factors for suicide ideation, attempts and death: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212(5), 279-286. <https://doi.org/10.1192/bjp.2018.27>
- Richardson, C., Robb, K. A., & O'Connor, R. C. (2021). A systematic review of suicidal behaviour in men: A narrative synthesis of risk factor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76, Article 113831.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21.113831>
- Rickwood, D., Deane, F. P., Wilson, C. J., &

- Ciarrochi, J. (2005). Young people's help-seeking for mental health problems. *Australian e-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Mental health*, 4(3), 218-251.
<https://doi.org/10.5172/jamh.4.3.21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si, A., Panzeri, A., Pietrabissa, G., Manzoni, G. M., Castelnovo, G., & Mannarini, S. (2020). The anxiety-buffer hypothesis in the time of COVID-19: When self-esteem protects from the impact of loneliness and fear on anxiety and depression. *Frontiers in Psychology*, 11, 2177. <https://doi.org/10.3389/fpsyg.2020.02177>
- Rossow, I., Romelsjö, A., & Leifman, H. (1999). Alcohol abuse and suicidal behaviour in young and middle aged men: differentiating between attempted and completed suicide. *Addiction*, 94(8), 1199-1207.
<https://doi.org/10.1046/j.1360-0443.1999.948119910.x>
- Salgado, D. M., Knowlton, A. L., & Johnson, B. L. (2019). Men's health-risk and protective behaviors: The effects of masculinity and masculine norm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20(2), 266-275.
<https://doi.org/10.1037/men0000211>
- Sarigül, A., Kaya, A., Aziz, I. A., Yıldırım, M., Özok, H. I., Chirico, F., & Zaffina, S. (2023). General work stress and suicide cognitions in health-care workers: mediating effect of hopelessness and job satisfaction. *Frontiers in Public Health*, 11, 1254331.
<https://doi.org/10.3389/fpubh.2023.1254331>
- Satuf, C., Monteiro, S., Pereira, H., Esgalhado, G., Marina Afonso, R., & Loureiro, M. (2018). The protective effect of job satisfaction in health, happiness, well-being and self-esteem. *International Journal of Occupational Safety and Ergonomics*, 24(2), 181-189.
<https://doi.org/10.1080/10803548.2016.1216365>
- Schafer, K. M., Mulligan, E., Shapiro, M. O., Flynn, H., Joiner, T., & Hajcak, G. (2024). Antenatal anxiety symptoms outperform antenatal depression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as a risk factor for postpartum suicidal ideation. *Anxiety, Stress, & Coping*, 37(6), 811-821.
<https://doi.org/10.1080/10615806.2024.2333377>
- Scourfield J, & Evans R. (2015). Why might men be more at risk of suicide after a relationship breakdown? Sociological insights. *American Journal of Men's Health*. 9(5), 380-384.
<https://doi.org/10.1177/1557988314546395>
- Sinacore, A. L., & Akçali, F. Ö. (2000). Men in families: Job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 1-13.
<https://doi.org/10.1023/a:1007791508654>
- Skogman, K., Alsén, M., & Öjehagen, A. (2004). Sex differences in risk factors for suicide after attempted suicide: a follow-up study of 1052 suicide attempter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9, 113-120.
<https://doi.org/10.1007/s00127-004-0709-9>
- Smolenski, D. J., McDonald, K. L., Hoffmire, C. A., Britton, P. C., Carlson, K. F., Dobscha, S. K., & Denneson, L. M. (2023). Informing measurement of gender differences in suicide risk and resilience: A national study of United States military veterans. *Journal of Clinical*

- Psychology*, 79(5), 1371-1385.
<https://doi.org/10.1002/jclp.23485>
- Stanaland, A., Gaither, S., & Gassman-Pines, A. (2023). When is masculinity “Fragile”? An expectancy-discrepancy-threat model of masculine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7(4), 359-377.
<https://doi.org/10.1177/10888683221141176>
- Sun, W. J., Xu, L., Chan, W. M., Lam, T. H., & Schooling, C. M. (2012).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e in 56,000 older Chinese: a Hong Kong cohort stud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7, 505-514.
<https://doi.org/10.1007/s00127-011-0362-z>
- Turecki, G., Brent, D. A., Gunnell, D., O'Connor, R. C., Oquendo, M. A., Pirkis, J. & Stanley, B. H. (2019). Suicide and suicide risk. *Nature Reviews Disease Primers*, 5(1), Article 74
<https://doi.org/10.1038/s41572-019-0121-0>
- Van Orden, K. A., Cukrowicz, K. C., Witte, T. K., & Joiner Jr, T. E. (2012).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construct validit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24(1), 197-215.
<https://doi.org/10.1037/a0025358>
- Van Orden, K. A., Witte, T. K., Cukrowicz, K. C., Braithwaite, S. R., Selby, E. A., & Joiner Jr, T. E. (2010).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Psychological Review*, 117(2), 575-600.
<https://doi.org/10.1037/a0018697>
- Wong, Y. J., Levant, R. F., Welsh, M. M., Zaitsoff, A., Garvin, M., King, D., & Aguilar, M. (2015). Masculinity priming: Testing the causal effect of activating subjective masculinity experiences on self-esteem. *The Journal of Men's Studies*, 23(1), 98-106.
<https://doi.org/10.1177/1060826514561989>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Suicide worldwide in 2019: Global Health Estimates*.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26643>
- Woo K.S., Shin S.S., Shin S.J. & Shin Y.J. (2018). Marital status integration and suicide: A meta-analysis and meta-regression. *Social Science & Medicine*, 197, 116-126.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17.11.053>
- Xu, X., Zhao, P., Hayes, R., Le, N., & Dormann, C. (2023). Revisit the causal inference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 meta-analysis disentangling its sources of inconsistenc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08(7), 1244-1261.
<https://doi.org/10.1037/apl0001073>
- Yeh, J. Y., Xirasagar, S., Liu, T. C., Li, C. Y., & Lin, H. C. (2008). Does marital status predict the odds of suicidal death in Taiwan? A seven-year population-based stud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8(3), 302-310.
<https://doi.org/10.1521/suli.2008.38.3.302>
- Zhu, Y. (2013). A review of job satisfaction. *Asian Social Science*, 9(1), 293-298.
<http://doi.org/10.5539/ass.v9n1p293>

논문 투고일 : 2024. 10. 24
 1 차 심사일 : 2024. 12. 02
 게재 확정일 : 2025. 01. 06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Unmarried Men

Ji Woong Lee Soo Hyun Park

Yonsei University

Recent studies suggest an increased risk of suicide among unmarried me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test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suicidal ideation in this population. To verify the significant pathway through which job satisfaction affects suicidal ideation via self-esteem among unmarried men, generally known risk factors for male suicide (depression, hopelessness, childhood trauma, alcohol abuse, and family history of suicide) were controlle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177 unmarried men between the ages of 20 and 49. Participants completed measures assessing job satisfaction, self-esteem,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hopelessness, childhood trauma, and alcohol use. We used bootstrap method to verif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irect effect of self-esteem was not significant but a full mediation of self-esteem was found between the relationship of job satisfac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unmarried men.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the stud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Unmarried Men, Suicidal Ideation, Job satisfaction, Self-esteem